하늘 사냥터

(고전15:1~11)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늘 사냥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라 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또, 산엘 가야 꿩을 잡고 바다에 가야 물고기를 잡는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죠?
꿩을 잡으려고 하면서 아파트단지에서 총 들고 나서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고기를 잡겠다면서 에버랜드 놀이공원을 간다는 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목적하는 게 있다면,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처소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만 된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에 관한 노래였다면 15장은 부활 장이라고 말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장을 부활이라는 주제를 앞에 논의되고 있던 것과 무관하게 불쑥 내밀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14장과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겠지요, 편지를 써 내려가는데 불쑥불쑥 앞에 쓴 것과 연관 없는 주제를 그냥 내밀고 기록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장과 내용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장 1절의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씀의 '추구하라'가 '디오케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 그 의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뒤쫓을 때의 집요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라, 단어 하나에 비유적인 큰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냥감으로 비유가 된다는 거예요, 어감이 좀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사냥감을 쫓는 사냥꾼의 집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라는 뜻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과의 거리를 없앨 때, 성공적인 사냥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냥하듯이 집요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제로로 만들어내라, 이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제로 된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자, 범을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되고, 꿩을 잡으려면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와 같이 사냥꾼의 집요함을 가지고 마치 비유적으로 하나님을 사냥이라도 하는 듯이 하나님께 다가가려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제로가 되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꿩을 잡을 사냥터는 산이고, 고기를 잡을 사냥터는 바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냥터는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손길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천지간에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못을 박아버리십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관계 맺을 경우에는, 인격적으로 나를 아버지로 만나주실 그 인격체적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만 된다는 얘깁니다.
산에 가야 꿩을 잡듯이 하늘에 가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뜻 안에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만남은 선택적인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땅에 머물러있을 만큼 이 땅 위에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못 박은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게 할 만큼 좋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하늘 사냥터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언제나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을 붙잡는 모든 땅 위의 좋은 것들에 대하여 포기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해진다는 겁니다.
마치 전도가 양양한 커리어 우먼이 서른이 넘어서 정말 멋진 신랑감을 만났는데, 그 신랑감의 모든 생활터전이 외국에 있는 교포2세입니다.
이럴 경우에 고국에서 쌓아놓은 커리어가 굉장하지만 그 한 남자를 보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역만리 신랑의 삶의 터전이 준비돼있는 곳으로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놔두고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사냥꾼의 집요함으로 추적하듯이 쫓아가서 만날 수 있는 처소가 하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늘 사냥터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하늘' 부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백 번 외우면 되는 것입니까?
정확한 길을 알아야 돼요, 눈이 덮인 산 위에서 사냥꾼이 꿩을 잡을 때 꿩의 발자국을 보면서 잡듯이, 사슴을 잡을 때 사슴의 발자국을 보며 쫓아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사냥터로 도달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어진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마음이 땅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땅에 대해 죽은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렇게 하늘을 향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은 전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역사적 사건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이 부활과 승천은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사람들에게만 알려졌고 믿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부활에 대한 교회 안팎의 적지 않은 거부감과 의심이 따라다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어떤 독일 신학자가 '부활은 완전히 망상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다'라는 책을 저술해서 독일 신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자까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망상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안에서도 부활에 대한 의심이 적잖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사상을 영향 받아서 영혼이 불멸하는 것은 맞지만,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한 이약기가 왜 확립되어야 하느냐 하면, '사랑을 추구하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유기적 연관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으려면 하늘 사냥터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하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당시의 제자들과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포함하고 있는 500명에게 나타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들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나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고린도교인들에게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부활에 대해 증언을 하는 어떤 누구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변호하고 변명하고 쫓기는 마음으로 증명하려 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은 증명되어야 될 사건이 아니라, 선포되어야 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인간들의 동의를 구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인정을 구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들에게 증명이 돼야 될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들에게 선포될 수 있는 사건일 뿐입니다, 변명도 필요 없고 변호도 필요 없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여기까지는 예언하셨었어요, '너희들을 아무도 만나지 않고 곧바로 부활해서 승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활을 단지 역사적인 사건으로 선포될 뿐이지 증명을 위해서 구차한 변명 변호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500명에게 나타났으니까 역사적 사실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500명과 열두 제자에게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열두 제자와 500명이 누굽니까?
이들과 함께 교회가 시작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교회가 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과 연관 지어서 사도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났다는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열두 제자와 추종하는 핵심세력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과 그들을 포함한 이 500명, 이들은 공생애 때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의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 위에 그들의 인생의 꿈이 세워져 있었고, 예수님 위에 그들이 인생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비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지상 위에서 자기들의 인생에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모든 꿈과 비전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혼비백산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알려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지고 하면서, 결국 이들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500명이 한 자리에 모인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에게 혼비백산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 주님을 통하여 이루고 싶었던 이 지상의 모든 꿈과 소원과 비전이 다 깨지는 것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 추종자들의 마음을 다 담보로 붙잡으시고 예수님은 훌쩍 하늘로 올라가버리십니다.
마음은 다 주님께 드렸는데 마음을 드린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버리시면서, 덩그러니 이 땅에 남게 된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바울이 하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자들이 교회로 모인 것이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바람에, 이 땅을 향해서는 마음이 없게 돼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 자들인데,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한다면 교인이 어떻게 성립할 것이며 교회가 어떻게 성립할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께 마음을 드림으로써,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감에 따라서 그 마음이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로 다 올라가버리고, 이 땅을 향해서는 무엇을 성취하겠다는 마음도 무엇을 갖겠다고 하는 마음도 남아있지 않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로 시작된 것이니까, 부활이 없으면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즉, 부활이라는 신학적 테마 자체를, 교리적 항목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고린도교회 안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 교회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서 사도바울은 '사냥꾼의 집요함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사냥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가라, 그 길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통해 이루어져 있는데, 너희가 그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갈 수 있는 하늘 사냥터로 가서 하늘 사냥꾼의 집요함으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제로가 될 수 있는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바울 자신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라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승천하셨던 주님께서 특별히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던 내가 이제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에 극적으로 달라진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과 연관 지어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죽는 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승천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을 따라 사냥꾼의 집요함을 따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도달하게 하시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 마음이 올라가는 이 길을 따라서 하늘에서 또한 내려오는 것이 있더라는 얘깁니다.
세상이 살 마음이 없어진 자들,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버렸으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랑한다면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서 커리어 우먼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랑이 먼저 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 신랑을 좋아하고 사랑할수록 더 이상 고국에서의 전도양양했던 그런 미래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외국에 가있으면 그 외국이 어떤 곳이든지 마음이 다 그곳에 가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국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는 자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런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는 살고 싶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따라서 하늘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고 싶은 마음도 의욕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늘에서 결정된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사도가 됩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모든 사도들이 십자가에서 흩어졌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운을 따라 하늘을 힘입어 이 땅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돼버립니다.
전후가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또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 길이 끊어져버린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므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그러더라도 부활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죄 사함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어떤가 하면 죄 사함만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사랑하는 주님이 가계신 곳 하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내 마음이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부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부활을 안 믿거나,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고,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는 집요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순간마다 되풀이되는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전부가 하늘로 올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내주시는 길이라는 얘기에요.
그 길을 따라 사냥꾼의 집요함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과의 거리를 제로로 만들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은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 마음이 없는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힘이 내려오셔서 당신의 뜻을 위해 살아가시게 될 때에, 핍박자가 사도가 되고 겁쟁이가 순교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꿩을 잡으려면 산에 가야 되고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됩니다.
사냥꾼의 집요함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로 가야 됩니다.
하늘로 가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길을 따라 내 마음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이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아버지 앞에 도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통해 하늘 사냥터에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죽으셔서 감사하고 부활하셔서 감사하고 승천하셔서 감사하신 우리 주님이 내신 길을 따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우리 마음이 사냥꾼의 집요함으로 무장하여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기필코 하나님과의 거리가 제로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제 삶에 내려오셔서 이웃사랑을 수행해나가 주시고, 당신의 뜻과 목적을 향해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